

社說

創刊 16周年 다짐

포천신문이 포천지역에서 창간한지 16주년을 맞이했다. 1990년 1월15일 창간했다. 그런데 기념식은 1개월 앞당긴 12월15일에 실시했다. 이것은 포천신문 운영위원회가 결정했다. 그 이유는 1월 15일에 창간기념식을 하게 될 경우 새해를 시작하는 시기에 창간기념식을 개최함으로써 축하객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1개월을 앞당겨 실시함으로써 지난 1년을 되돌아보는 계기 마련은 물론 창간을 기념하는 기회로 삼기 위함이다. 포천신문 창간 제16주년 기념식은 한마디로 성황을 이루었다고 표현할 수 있다.

특히 언론사의 창간기념식 관행으로 내려오는 찬조금을 받지 않아 그 의미가 더욱 빛나는 기념식으로 평가되고 있다. 봉투를 내미는 수많은 손길을 사양하는 일도 쉽지 않았다. 그러나 그 마음만큼은 소중하게 받았다.

이날 기념식에서 얻은 몇 가지 교훈과 앞으로 포천신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작은 잘못도 크게 보도하는 관행을 탈피해 큰 장점을 크게 보도하여 널리 알림으로써 함께 힘을 모아 지역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포천신문 지면을 통해 포천사람들에게 알려졌다. 그것은 그 사람들의 잘못보다는 장점이 널리 알려졌다. 또 포천에 소재한 교육기관이 널리 소개되었다. 년초에는 3개 대학 총·학장과 관내 초·중·고교를 관할 하는 포천교육장의 비전을 널리 알렸다.

그리고 그 비전을 하나하나 추진하는데 힘이 되도록 다시 한번 강조하고 알리는 일에 적극 나섰다.

이 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3개 대학을 포함해서 각급 학교에서 포천신문의 이같은 편집방향을 파악하여 능동적으로 자료제공에 나서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료를 요구하면 반드시 응답의 댓가가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 구두에서 아직도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응답의 댓가 보다는 세운 계획대로 착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보다 더 큰 결실을 맺는 것이 바로 취재보도에 대한 댓가라고 생각해야 한다.

창간 16주년을 맞아 포천신문이 포천사회에 바란다.

첫째, 포천사회의 대표적인 언론매체로 자리잡고 있는 포천신문을 최대한 활용하기 바란다. 포천신문은 언제나 열려 있으며 포천을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대서특필할 자재가 되어 있다. 적극적인 제보를 환영한다. 충분히 활용하길 바란다.

둘째, 포천신문을 구독하기 바란다. 매체는 보다 많은 독자가 생명이다. 좋은 소식을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구독자 확보에 다같이 동참하여 주기를 기대한다. 찬조금은 물론 기사에 대한 댓가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구독료는 받는다. 그것이 바로 언론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포천지역의 아름다운 소식이 많이 게재되는 신문을 구독한다는 것은 포천시민에게는 즐거운 일이 될 것이다. 보다 많은 시민들의 구독신청을 기대한다.

셋째, 다양한 정책제안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한다. 포천사회가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입안되어야 할 것인지 각계 전문가나 시민의 정책제안이 줄을 잇기를 기대한다. 여러 가지 포천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대책이 있을 것이다. 특히 현안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각계 전문가그룹에 의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물론 시민운동단체나 전문가 집단의 활동이 크게 보이지 않는 시점에서 이러한 정책제안을 기대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제는 포천시도 도농복합시로서 여러 가지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이 숙제를 하나씩 풀어나가기 위한 다양한 의견제시가 절실하다. 본지는 이러한 정책제안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토론회를 주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포천신문은 포천시의 최대관련인 교육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교육이 살아야 포천이 산다는 생각으로 교육현장의 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기가 무겁게 의정부나 서울로 빠져 나가는 우수학생들을 포천에서 교육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이 문제는 교육계에만 맡겨 둘 일이 아니다. 지역주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본지는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포천관내 학생들의 실력향상을 위한 대책도 포천교육청과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포천 교육문제에 대해 관심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다섯째,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보도해 나갈 계획이다. 포천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집중보도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또 문화의 도시 포천시를 문화예술의 본고장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다. 무분별한 외부 공연물의 주입식 공연이 아닌 포천시민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문화예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실태분석과 발전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해 나갈 계획이다. 포천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문화예술인들은 물론 기획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대안제시를 기대한다.

아울러 포천신문은 지원조직이 잘 구성되어 있다.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학생명예기자단, 주부명예기자단, 조사위원회가 구성돼 있다. 각기 나름대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원조직은 포천신문이 지역의 매체로서 성장해 나가는데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포천신문도 적극 홍보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16만 포천시민들로부터 마음껏 축하인사를 받은 포천신문 창간 제16주년 기념식의 성대함과 같이 포천시가 크게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포천신문이 그 발전의 중심에 서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시민들에게 약속한다.



축하액 절감식 포천신문 창간 16주년을 축하해 주기 위해 참석한 내빈들이 포천신문이 앞으로 포천지역에 꼭 필요한 매체로서 포천시민과 더불어 건강한 사회건설과 언제나 바른 지역언론 창달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축하액을 절감하고 있다. (사진은 좌로부터 최태기 포천 소방서장, 이문용 재경포천시민회장, 홍성훈 포천시의회 의장, 고조훈 국회의원, 최호열 발행인, 박운국 포천시장, 임희동 포천시법원장 변진수 포천교육청 교육장.)

창간 16주년 기념식 화보 “지역사회 비전 제시하는 新聞으로 거듭날 것”



경과보고 본지 운영위원회 권혁은 총무는 경과보고를 통해 “포천신문은 1990년1월15일 창간되었고 현재 최호열 발행인이 2000년8월에 인수하여 2000년10월26일 재창간한 140호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326호를 발행하였으며 각 지원조직과 함께 불우이웃돕기 운동등 지속적으로 펼쳐는 등 포천시의 대표적인 언론매체로서의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다.



감사패 전달 본지 최호열 발행인이 박운국 포천시시장에게 포천신문 초대 대표이사로 서 포천신문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유공으로 감사패를 전달했다.



공로패 전달 본지 최호열 발행인이 송관수 세무회계사에게 지난 5년 동안 세무서비스를 인내하여 독자들의 알 권리 충족에 이바지한 유공으로 공로패를 전달했다.



발행인 기념사 본지 최호열 발행인이 기념사를 통해 “본지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학생명예기자단, 주부명예기자단, 조사위원회 등 지원조직과 그동안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포천신문은 작은 소리도 들려주지 않고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신문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축사 고조훈 국회의원(한나라당 포천·연천)은 축사를 통해 “최근 황우석 교수 문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언론의 역할이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는 시기”라고 지적하고 “창간16주년을 맞이한 포천신문이 지역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는 중요한 언론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창간1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



포천시장 축사 박운국 포천시장은 축사를 통해 “포천신문 창간 1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포천시가 35만인구 신도시 개발과 수도권호선 우회도로 개설 등 교통여건 개선으로 보다 풍요로운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이같은 목표를 추진할 수 있도록 다같이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하기도 했다.



포천시의회의장 축사 홍성훈 포천시의회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창간 16주년을 맞이하는 포천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힘을 더해주기를 기대하며 여왕님처럼 밝고 아름다운 포천시를 만들어가는 문화예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실태분석과 발전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해 나갈 계획이다. 포천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문화예술인들은 물론 기획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대안제시를 기대한다.”



포천교육청 축사 변진수 경기도포천교육청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포천신문은 교육계의 작은 단점보다는 큰 장점을 계속해서 보도함으로써 교장과 교사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고 감사하고 “오늘 창간 1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 포천교육 발전을 위해 더욱 높은 관심과 애정으로 정점을 보도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재경포천시민회장 격려사 이문용 재경포천시민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포천신문은 봉투를 거절하는 기개를 지켜없이 선택 타협하지 않음으로 언론의 참 모습을 지켰다”고 강조하고 “가장 없는 역사의 기록 신문인 포천신문을 수구하 묵묵히 펼쳐서 언론에게 가장 격찬의 배려를 인신에 지지와 사랑 받는 포천신문으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밝혔다.



공지사향 본지 최두열 전무이사는 “오늘 행사는 포천신문 운영위원회가 주관하여 마련한 행사로 그동안 포천신문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늘 지원해주신 운영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며 “오늘 행사를 지원해주신 골든자이거방과 유종하 대표, 하승우리 전주식당, 시아방 노래방, 주부명예기자단, 늘꽃꽃 화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건배제의 본지 운영위원회 윤이용 위원장은 “포천신문이 그동안 포천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물론 건전한 언론매체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감사하고 “오늘 창간 16주년을 맞이한 포천신문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힘을 모아주자”고 건배를 제의했다.



축하식 낭송 원간 문학계로 등단한 김서연 시인은 축하시를 통해 “포천신문은 봉투를 거절하는 기개를 지켜없이 선택 타협하지 않음으로 언론의 참 모습을 지켰다”고 강조하고 “가장 없는 역사의 기록 신문인 포천신문을 수구하 묵묵히 펼쳐서 언론에게 가장 격찬의 배려를 인신에 지지와 사랑 받는 포천신문으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밝혔다.



회회 전달식 본지 자문위원회 양주승 위원장은 이날 기념식후에 직접 쓴 회회를 본지 최호열 발행인에게 전달하고 회회의 내용처럼 포천신문이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회는 ‘先公後私(선공후사)로 직역을 하던 ‘시적인 일보다 공적인 일을 먼저하리’이며 의역하면 ‘포천신문이 나의 유익에 앞서 많은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리’란 뜻이라고 밝혔다.



특별출연 김성환 맨틀 본지 최호열 발행인 지난 2000년 포천신문을 인수하여 재창간 할 당시 포천신문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 기원해준 김성환 맨틀씨가 이날 2부 축하한마디에서 사회자로 나서 함께 한 포천신문은 물론 포천신문 가족들에게 창간 16주년을 맞은 노래와 한마디를 통해 축하하기도 했다.

Information box containing contact details for Pocheon News, including phone numbers, website, and address.